

연 6.6만톤 규모... SK지오센트릭, 세계 첫 재활용 기업 진화

英 플라스틱 열분해 기업과 협력
울산 열분해 공장 설립 계약 체결
열분해유 한층 높은 품질로 개선

SK이노베이션 친환경 화학사업 자회사 SK지오센트릭이 영국의 플라스틱 열분해 전문 기업과 협력하면서 세계 최초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업으로 거듭난다.

전 세계가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에 주목함에 따라 이번 SK지오센트릭의 협약은 SK그룹이 목표하는 '넷제로'에 강력한 부스트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SK지오센트릭은 6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3 현지에서 영국 '플라스틱 에너지(Plastic Energy)'와 울산 폐플라스틱 재활용 종합단지 내 열분해 공장 설립을 위한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현지시각) 밝혔다.

SK지오센트릭 관계자들은 CES현장에서 SK기자단을 만나 이번 협약으로 나아갈 방향과 전략에 대해 공유하고 SK그룹차원에서 진행하게 될 친환경



이종혁 SK지오센트릭 그린산업개발팀장이 CES2023 테크데이에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K

경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SK지오센트릭은 플라스틱 밸류체인 전반의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세계 최초 리사이클링 기반의 화학회사로 한단계 진화하고 있다. 간단하게, 석유로 만들어진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다시 석유

를 뽑아 내고 버려진 플라스틱에는 기술력을 더해 새로운 자원으로 만들어내

는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형태다.

실제, 이번 CES2023에서 차량용 경량화 소재인 UD Tape(Unidirectional Tape)는 플라스틱 섬유 형태의 강화재를 더한 고기능 복합 소재를 선보였다.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은 "최첨단 기술의 경연장인 CES에서 친환경,

탄소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핵심 기술 확보를 완료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핵심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울산ARC 조성이 순조롭게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혁 SK지오센트릭 그린산업개발팀장은 "울산에 플라스틱 에너지의 선진열분해 기술을 도입해 오는 2025년까지 아시아 최대인 연6만6000톤(폐플라스틱 처리 기준) 규모의 공장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 보유 기술로 열분해유 후처리 공장도 동시 조성해 열분해유를 한층 높은 품질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플라스틱 에너지 열분해 기술을 통해 생산한 재활용 플라스틱의 경우 아이스크림과 화장품 용기로 쓰일 만큼 높은 품질과 친환경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앞서 영국기업과의 협력이 SK이노베이션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결국 SK그룹이 목표하고 있는 '넷제로', '그린투카본'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실제 김준 이노베이션 부회장은 "우리 주력은 화학과 에너지다. 이에 앞으로 환경 비즈니스로 완벽하게 전환할 계획이다. 오래 걸리더라도 화학과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접목할 것"이라며 "결국 제로카본으로 에너지를 바꾸고 리사이클링을 통해 환경에 도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K지오센트릭은 폐플라스틱 재활용 종합단지의 공식 명칭을 '울산 ARC(Advanced Recycling Cluster)'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SK지오센트릭은 미국 퓨어사이클사(Pure Cycle Technologies)와 폐플라스틱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고순도 재생 폴리프로필렌(PP) 추출 기술(Ultra PP extraction technology)과 관련해 협력을 하고 있으며, 680억원 규모 지분투자에 이어 합작법인 설립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내 독점판매권과 중국 및 동남아 사업권도 확보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최빛나 기자
vina@metroseoul.co.kr

국민연금 지분 감소... 이강철 사외이사 사퇴... 구현모 연임 '안갯속'

(KT 대표)

KT 최대주주 '국민연금' 지분 9.99%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 '연임 반대'

'국민연금 지분 감소', '이강철 사외이사 사퇴' 구현모 KT 대표(사진)의 CEO 연임에 새로운 변수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먼저 구 대표 연임에 반대 의사를 밝힌 KT 최대주주인 국민연금 지분 감소다.

9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KT 주총 때만 해도 12.57%였지만, 6월 11.23%, 11월 10.35%로 떨어진 뒤 올 초 9.99%까지 하락했다. 10% 아래로 떨어진 국민연금 지분이 구 대표 연임에 긍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3대 주주를 합하면 13.37%로 국민연금 간 지분격차는 더 벌어진 상태다.

KT와 현대차그룹은 KT 자사주 약 7500억원을 현대차 약 4456억원, 현대모비스 약 3003억원 규모의 자사주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상호 지분을 취득했다. 현대차그룹이 다른 기업과 지분을 교환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다. KT와 신한은행도 지난해 1월 4375억 원 규모의 지분을 교환하고 공동 플랫폼 신사업, 전략적투자(SI) 펀드 조성 등 4가지

영역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소액주주 지분율 57%, 외국인 지분율이 40%인 점도 구 대표에게 유리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호지분으로 분류된 2·3대 주주들이 국민연금과 표결을 펼치게 되면 구 대표의 연임은 무난하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들 두 기업은 국민연금을 주요 주주로 두고 있는 만큼 KT에 힘이 되어 줄 것이라는 판단은 성급하다. 현 정권에서도 구 대표 연임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 더 그렇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수는 이강철 KT 사외이사 사퇴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대통령 정부특보를 지낸 이 사외이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3월부터 KT 사외이사로 활동해왔다. 업계

에선 "이 사외이사가 구 대표의 연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물러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현 정권은 KT 이사회에 친노·친문 인사가 많이 포진돼 있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대우 사외이사도 노무현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을 지내 전 정부 인사로 꼽히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구 대표 연임 반대도 걸림돌이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횡령·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구 대표 연임 시도는 부적절하다"며 "구 대표가 손실 보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KT는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 권익을 침해한 대표를 연임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KT 노조는 지난해 11월 8일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구 대표의 연임을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KT 노조 관계자는 "구 대표는 10여년 만에 KT 출신 CEO로서 3년 전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재임기간 동안 대내외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경영 성과를 창출했다"며 구 대표의 연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구 대표를 대체할 인물 하마평까지 나온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20대 국회의원인 과기정통위에서 활동한 김성태 전 의원과 KT 전무 출신으로 삼성 SDS 대표를 지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흥원표씨 등이 다.

/채윤정 기자 echo@

쌍용차, 토레스 하이브리드 LPG 출시... 품질·내구성 '자신감'

차체 등 보증기간 업계 최고 수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뛰어난 연료효율성을 갖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르노코리아자동차의 QM6와 아시아의 스포티지가 국산 SUV LPG 모델로 주목받아 왔지만 쌍용자동차가 LPG와 가솔린을 결합한 토레스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하면서 경쟁에 나섰다.

쌍용차는 토레스의 '하이브리드 LPG 모델'을 선보이고 10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토레스 하이브리드 LPG 모델은 LPG 연료만을 사용하는 경정 모델과 달리 가솔린과 LPG 연료를 병용해서 사용하는 바이퓨얼(Bi Fuel) 방식을 적용해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는 고객은 가솔린 대비 연료비가 30% 이상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또 LPG 차량에 대해 갖고 있는 저출력·저연비·겨울철 시동 문제 등의 선입견들은 토레스 하이브리드 LPG 모델이라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 LPG 모델은 토레스의 우수한 정속성을 자랑하는 친환경 1.5 l GDI 터보 가솔린 엔진(e-XG Di150T)의 최고출력(170마력)과 최대토크(28.6kg·m)의 95% 이상 강력한 성능(165마력)을 발휘하며, 주행 시 LPG 연료를 모두 사용하면 가솔린 모드로 자동 전환되어 충전소를 찾아 다니는 번거로움까지 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솔린(50 l)과 LPG



쌍용차 토레스 하이브리드 LPG 모델.

(58 l)의 연료탱크를 완충하면 최대 10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해 충전(주유)을 자주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으며, 겨울철 영하 날씨에도 시동 시 LPG 연료가 아닌 가솔린을 사용하여 시동에 대한 불편함이 없다.

토레스에 적용한 하이브리드 LPG 시스템은 국내 최고의 LPG 전문기업인 로턴(ROTURN)과의 기술 협약의



쌍용차 토레스 하이브리드 LPG 도넛탱크.

로 완성도를 높여 세계 최대의 LPG 시장인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양보다 높은 상품성을 자랑한다. 쌍용차는 품질 및 내구성에 대한 자신감으로 하이브리드 LPG 시스템의 무상 보증서비스 기간을 경쟁모델을 넘어서는 3년/무제한km로 운영한다. 차체·일반부품 및

엔진·구동전달부품 등의 보증기간은 5년/10만km로 동급 업계 최고 수준이다.

토레스 하이브리드 LPG 모델은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사양으로 판매된다. 가격은 ▲TL53130만원 ▲TL7341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